

# 일상접촉자도 능동형 감시 대상으로 전환

광주 밀접접촉자, 직장 동료인 메르스 확진자와 함께 탑승

추석까지 예방 골든타임...전담공무원 지정 확산 방지 총력전  
전남대병원 임시진료소 설치...조선대병원도 병동 준비 마쳐

광주시에 거주하는 밀접접촉자가 메르스 확진자와 직장 동료로 귀국행 비행기에 함께 탑승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까지 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에게서 뚜렷한 증상은 없지만 광주시, 각구 보건소 등은 밀접접촉자는 물론 일상접촉자 전원에 대해 대해서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찰하는 능동형감시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였다. 전남대학교병원은 의심환자 임시진료소를 설치하고 환자 면회 시간 통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비를 마쳤다. 전남대병원은 국가지정응급 격리병동 운영을 위한 사전점검을 마쳤다. 응급격리병동은 병동 내 압력을 외부보다 낮도록 만들어 병동 내 공기가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만든 시설이다. 전남대병원은 응급의료센터 앞에 의심환자 임시대기소를 설치해 의심환자가 병원에 곧바로 들어오는 것을 제어하고 있다. 또 전부서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메르스 의심환자 대응요령 등을 전달했다. 각 병동 출입구에도 메르스 안내문을 내걸어 외부

인에 대한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의심환자를 즉시 격리,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축적한 노하우를 심분 활용해 대응체계를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전남도 등 방역당국은 메르스 잠복기가 최대 14일까지인 점으로 미뤄 오는 추석까지를 확산 예방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총력을 쏟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시청 재난대책회의실에서 관내 의료기관, 경찰, 소방,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회의가 열렸으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쿠웨이트를 방문한 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

고 지난 8일부터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인 메르스 환자 A(61)씨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밀접접촉자 중에는 현재까지 특이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이 중에서 같은 비행기에 탔던 영국인 여성 1명을 의심환자로 검사한 결과, 1차 음성으로 나왔고, 2차 검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현재 전국적으로 일반접촉자는 440명으로, 추가 조사가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일상접촉자로 분류된 영국인 여성(24)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으로 의심환자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으나,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10일 전남대학교 응급의료센터 출입문 앞에 중등호흡기증후군(메르스)증상 등이 담긴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재판거래 의혹'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심리

광주 양금덕 할머니 등 5명  
미쓰비시 상대 1·2심서 승소  
손배소송 마지막 재판 주목

광주출신 양금덕(87)할머니 등 '조선 여자근로정신대'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 소송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의 뒷거래 속에 강제로 재판을 지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징용 소송 중 하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은 10일 "양금덕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할머니 등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했다. 징용 피해자들은 1999년 3월 1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

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2012년 광주지법에 다시 소송을 냈고, 1심은 양 할머니 등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5000만원씩, 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총 6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2015년 6월 "일본 정부의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편승해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거짓말로 13-14세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을 일부 조정해 양 할머니 등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2000만원씩, 다른 피해자 1명에게 1억원, 유족에게 1억208만원 등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 선고 직후 미쓰비시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국내 법원이 다시 재판할 수 있는지 등을 핵심쟁점으로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 전주 한 중학교서 동급생 성폭행 파문

신체 촬영하고 협박까지  
경찰, 가해학생 3명 수사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주 한 중학교에서 A(14)양이 동급생인 B(14)군 등 3명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군 등은 A양 신체 일부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의 몸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 부모 신고로 수사에 착수,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방제훈련하던 여수해경 직원 사망

양묘기 작동 중 다리 끼여  
안전수칙 준수 여부 조사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직원이 방제훈련을 하다 숨졌다. 10일 오전 10시께 여수시 오동도 북서쪽 3.3km 앞 해상 450급 방제정에서 여수해경 소속 A(57·6급)씨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숨졌으나 숨졌다. 여수해경 일반직 직원인 A씨는 서해청이 주관하는 해상종합훈련에 참가해 방제정에서 줄을 끌어 올리는 양묘기를 작동하

던 중 줄에 왼쪽 다리가 끼면서 다쳤다. A씨는 여수의 한 병원에서 긴급 봉합 수술을 한 뒤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 추가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해경은 방제훈련에 참가한 지휘관과 조타실 근무자, 훈련 교관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등 문제가 발견되면 징계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해경은 A씨의 장례를 서해지방해양경찰·정장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일정 등은 유가족과 협의하기로 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생후 2개월 아기 화상 쇼크사  
여수경찰, 20대 부모 조사

생후 2개월 된 여자아이가 화상을 입고 숨겨 경찰이 20대 부모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10일 여수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께 여수의 한 병원에 A(23)·B(여·22)씨 부부의 아기가 화상을 입고 이송됐다. 아기는 머리와 발목, 엉덩이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화상 입은 쇼크로 이미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기를 목욕시키다가 실수로 화상을 입게 했다는 부부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나주 공사장 외국인근로자  
론크리트 수로관 깔려 숨겨

10일 오전 11시 51분께 나주시 남평읍 한 마을 하수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키르기스스탄 출신 노동자 A씨가 수에 달하는 콘크리트 수로관 아래에 깔렸다. 온몸을 심하게 다친 A씨는 소방대에 구급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배수로 독 위에 올려둔 수로관을 밟고 서 있던 중 수로관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관리 의무 소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아내와 성관계 유도...돈 많은 지인 협박 수익 뜯어낸 부부



○아내와의 성관계를 유도에 지인에게 2억원을 뜯어낸 부부가 나란히 쇠고랑. ○10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청에 따르면 A(37·구속)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5월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재력가 C씨에게 사업자금으로 9000만원을 빌린 뒤 자신의 아내 B(36·불구속)씨를 시켜 5500만원을 추가로 빌리도록 하고 성관계를 지시했으며, 아내와 C씨가 두 번째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지

난 5월 모텔 앞에서 C씨를 붙잡아 '당신 아내 회사와 자녀 학교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불륜 입막음' 용으로 550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는 것. ○월말결에 2억원이나 뜯긴 C씨는 이들 부부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분석해 공모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고 설명. /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곳!!

##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인접 국가산단에 투자하거나 공동중개 하실분 상담환영!!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

